

◎ 교회목표 ◎
1. 천국시민 양성
2. 만민에게 전도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1996년도 표어 ◎
“성숙한 교회를 이루자”(엡4:13)
◎ 생활지침 ◎
섬기는 생활
주는 생활
경건한 생활

발 행 인: 이 중 윤 발 행 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737-3 전화 (02) 517-7651 ~ 5 팩스 (02) 512-1225

제 7차 김치신학세미나 내일 개막

특별새벽기도회 21일에 시작

“새벽기도회를 전세계로”

오랫동안 기도해오던 제 7차 김치신학세미나가 내일부터 시작된다. 이번 김치신학세미나에는 호주, 뉴질랜드, 피지, 서사모아, 사이판 등 오세아니아주의 목회자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의 교계 지도자 29명이 참가한다.

김치신학세미나의 가장 중요한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는 강의 및 강사는 개회예배에 ▶세계선교를 위한 개교회의 역할이라는 제하의 이종운 목사의 강의를 비롯, ▶한국교회약사(언더우드 / 연세대 명예교수), ▶성경적 교회갱신원리 및 실제적 적용(이중윤 / 서울교회 목사), ▶복음전도와 사회활동(이윤구 / 선명회 회장), ▶교회성장을 위한 소그룹 활동(김상복 / 할렐루야교회 목사), ▶평신도 전도운동(킨슬러 / 미국 장로교 선교사), ▶한국교회와 기도생활(손영준 / MTT원장), ▶전도의 전략과 실제(이광순 / 장신대 교수), ▶로잔운동의 역사와 신학(조종남 / 전 서울신대 학장) 등이다.

타문화권 교계지도자를 초청하여 갖는 김치신학세미나의 가장 주된 목적은 참가자들이 자국복음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세계 복음화에 일익을 담당하고자 하는 것이다.

특히 올해는 김치가 로잔의 공인기관이 되어 세계적인 주목을 받는 가운데 이 일을 진행하고 있다.

참가자들은 강의와 토론을 통해 영적인 지식을 얻고, 국가별 전략모임(National Strategy Meeting)을 통해 자국복음화를 위한 적용을 모색하게 된다.

또한 참가자들은 교회·기독교학교·신학교를 방문하고, 교회학교와 목회자신학세미나 현장, 다락방모임과 새벽기도회에 참가하여 한국 교회의 모습도 보게된다. 김치신학세미나의 목적 중의 또 하나가 타문화권 목회자들로 하여금 한국교회의 성장요인을 알려주고, 현재 한국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한국교회 성장의 초석이 되어 온 새벽기도회를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려는 데에 중요한 목적이 있다.

우리교회는 21일(화)부터 31일(금)까지 제 7차 김치신학세미나와 오세아니아를 위한 특별새벽기도회를 갖는다. 기도회는 5시 30분에 시작하며 설교는 이중운 목사가 한다. 세미나 참가자를 위하여 새벽 기도회 모든 순서는 동시통역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제 7차 김치 신학세미나 프로그램

	5. 20.(MON)	5. 21.(TUE)	5. 22.(WED)	5. 23.(THU)	5. 24.(FRI)	5. 25.(SAT)	5. 26.(SUN)	5. 27.(MON)	5. 28.(TUE)	5. 29.(WED)
5:30	오세아니아를 위한 새벽기도회 Pre - dawn Prayer Meeting for Oceanian									
6:00	개인경건의 시간 Private Quiet Time									
7:00	아침식사 Breakfast									
8:30	자유시간 Free time									
10:00	개회예배 Opening Worship									
	강의 I Lecture I	강의 II Lecture II	강의 III Lecture III	강의 IV Lecture IV	강의 V Lecture V	교회학교 참관 Sunday School	강의 VI Lecture VI	예배 Chaple	강의 VIII Lecture VIII	
10:50	도착 Arrival	휴식 Intermission								
11:10		토의 Discussion	토의 Discussion	토의 Discussion	토의 Discussion	토의 Discussion	주일 예배 Worship Service	토의 Discussion	강의 VII Lecture VII	토의 Discussion
12:00	점심식사 Lunch									
13:00	시내관광 City Tour	교회 방문 Visit Church	기독교대학방문 Visit Christian Univ.	자유시간 Free	산상기도 Mountain Prayer	간증 Testimony	목회자세미나 참관 Pastoral Seminar	신학교 방문 Visit Theological Seminary	강의 IX와 토의 Lecture IX Discussion	
15:00						찬양예배 Evening Worship	성서공회 방문 Visit Korea Bible Society			
18:00	환영만찬 Welcome Dinner									
19:00	등록 Registration	저녁식사 Dinner					가정초청만찬 Home Dinner	교계지도자 초청만찬 Dinner with Ch. Leaders	저녁식사 Dinner	폐회예배 Closing Worship
20:30		국가별 모임 Nat'l Meeting		다락방 참관 Upper RM Study	자유시간 Free Time	묵상 Meditation				
21:00	그룹기도 Group Prayer									

* 5. 30.(THU) - 참석자 출국 Departure

창세기
강해

사람은 잊었으나 하나님은...

(창세기 40장 23절)

이종운 목사

창세기 40장 14 ~ 15절에서 우리는 요셉의 인간적인 면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왕의 술 따르는 관원의 꿈을 해석해 주고 “당신이 복직될 때 나를 생각해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아마도 술 따르는 관원장은 그의 청을 들어줄 것이라고 굳게 약속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요셉을 기억하지 않고 잊어버렸습니다(23절).

1. 인간을 믿으면 실망한다

창세기 41장 1절은 “만 2년이 지났다”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 2년동안 하루 하루를 기대 속에서 보냈을 요셉은 약속을 지키지 않은 사람으로 인해 아마도 감옥생활 중에서 배신감과 고통을 크게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가져다 주실 것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시편 105편은 요셉의 생애에 관한 것입니다.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와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시105:17 - 19).

색동옷을 입었던 요셉이 감옥에 갇혀 소처럼 멍에를 매고 반복되는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희망도 다 무너져 내렸을 것입니다. 옥문이 열릴 때마다 요셉은 달려나갔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를 2년이니 마침내 그는 포기하고 더 기다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인간적 희망이 그를 절망으로 떨어뜨렸습니다. 술 따르는 관원은 요셉을 실망시켰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2년 아니 그보다 훨씬 오랜 세월 인간적 희망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감옥은 아니지만 환경의 감옥에서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곳을 벗어날 수 있기를 기다립니다.

친구, 친척, 이웃이 조직의 사다리를 타고 높이 올라갈 때 푸른 창공에 이르면 당신의 하나님께 알려 내게도 자리를 줌 주시기를 부탁해 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친구가 나를 떠난 후 대개 그들은 나를 잊어버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같은 경우 배신감을 느끼며 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요셉은 절망하지도, 고통스러워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사람들은 요셉을 잊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년동안 하나님

께서는 계속 일하고 계셨고 당신의 뜻을 이루고 계셨습니다.

2.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잊기 쉽고, 친구의 부탁을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결코 잊지 않으신다는 사실조차 잊는 것이 연약한 인간입니다. 우리는 성숙한 태도를 일관되게 갖고 있었던 요셉만큼 굳센 믿음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노아의 이야기를 생각해봅시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방주를 만들고 그 속에 들어갔으나 7일간이나 비가 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혹 잊으신 것은 아닌가고 그는 염려했을 것입니다. 홍수가 나자 노아의 가족만 남고 모든 것은 사라졌습니다. 150일간 세상은 적막에 쌓인 세상을 보며 하나님께서 자기를 잊으신 것은 아닌가고 노아는 두려워했습니다. 노아는 영적인 사람이며 그 당시의 의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그도 모든 것이 멸한 것을 보며 두려움과 의심에 빠진 것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8장 1절에서 “하나님이 노아를 권면(기억)하셨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한 편의 강도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눅23:42)라고 부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하심으로써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3. 교훈

인간을 의지하던 것을 중지합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있느뇨”(사2:22)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숨을 그치면 죽는 인생을 왜 의지합니까? 인간에게 희망을 걸면 그 희망이 우리를 실망시킵니다. 인간을 의지했던 요셉의 경험은 더 이상 인간을 의지하지 말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의 형들, 보디발과 그의 아내, 왕의 신하들... 요셉의 일생에 있어서 인간은 항상 요셉을 실망시킬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을 더욱 의지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일항 미쁘시니”(딤후2:13).

나 자신조차도 믿을만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잠언에서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잠3:5)고 교훈하십니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시146:3, 5).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렐17:5, 7).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함이 방백들을 신뢰함보다 낫도다”(시118:8, 9).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움이이시요 너희 방패시로다”(시115:11).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이다”(시56:3).

✧ 순례자 컬럼 ✧

“사랑이 제일”

사랑없는 언어는 무의미한 소리와 소음일 뿐이며 사랑없는 신앙은 독선이요, 사랑없는 자선은 상실이요, 모독이 될 뿐이기 때문에 사도바울은 사랑이 제일이라고 강조했다.

지금 우리 민족 사회의 이 난국을 해결할 수 있는 묘방이 있다면 잃어 버린 채 무시되어 버린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시키는 일이다. 이 사랑이 성도를 온전케 매는 띠가 될 것이고 사랑의 힘으로 모든 국정과 사회의 현안을 풀어나갈 수만 있다면 이 나라 민족 사회는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될 것이다.

바울은 사랑을 긍정적으로 설명하면서 오래 참고 온유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라 했고 부정적으로는 투기하지 않고 자랑치도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무례히 행치 않는 것이요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고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거나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이라 했다. 이같은 사랑이 우리 안에 속히 회복될 수 있기를 기도한다.

■우리부서는요 - 중등부

“사춘기 꿈나무들의 요람”

우리 중등부의 위치는 아래로 유치부,유년부, 초등부 동생과 위로 고등부, 대학부 언니 오빠들이 있는 교회학교 중 가장 가운데입니다. 말씀의 생활화, 기도의 생활화, 찬양의 생활화, 전도의 생활화, 사랑의 실천 생활화 등 다섯가지의 교육목표를 가지고 박철훈 장로님의 보살핌과 박귀환 목사님의 지도, 스물 일곱 선생님들의 헌신으로 170여 명의 꿈나무들이 자라고 있는 곳이고요.

또 학생들의 자치조직인 학생회는 '성숙한 중등부를 이루자' 라는 표어 아래 적극적인 활동을 펴 다른 교회학교의 부러움을 사고 있습니다. 부서는 전도부, 봉사부, 친교부, 찬양부, 편집부, 성극부 등 6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전도부의 활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새친구 전도를 위해 열심히 활동한 결과 올 1월부터 4월까지 약 4달동안 39명의 새친구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친구들이 계속 나올 수 있도록 모두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교회에 등록된 가정의 중등부 친구들이 250여 명 전원이 중등부에 출석할 수 있기를 합심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전도부 등 6개 부서 활발한 활동 전개 성극부선 오늘 “돌아온 탕자” 공연

찬양부는 12명으로 구성된 싱어롱팀입니다. 주일예배가 끝나면 약 10분간 울동과 찬양으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올 들어 눈부신 활약을 하고 있는 편집부와 성극부의 자랑도 빼놓을 수는 없지요.

편집부에서는 '실로암'이라는 회보를 발간합니다. 지난 2월에 창간호가 선보였고 4월 21일에는 제2호를 내놓았습니다. 저희들의 마음으로 쓴 아름다운 신앙간증과 시와 수필이 가득한 '실로암'에 많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부활절 '구레네 시몬'을 은혜 가운데 공연한 바 있는 성극부는 완벽에 가까운 조명과 의상, 소품을 갖추고 제2의 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주일인 19일(오늘) 10시부터 2층 중등부 예배실에서 성극 '돌아온 탕자'를 공연합니다. 많이 참석하시어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교회건축을 위하여, 비록 작지만 기도로 정성을 모으기 위해 저금통을 한사람이 하나씩 준비하여 6월 6일로 예정된 성전기공예배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저희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여 주시는 부모님들과 선생님들의 따뜻한 보살핌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관심을 가져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욱이 주님 안에서 생활하는 중등부가 되도록 꼭 기도하여 주십시오.
(김혜린 / 3학년)

서론

타종교를 어떻게 신학적으로 해석하느냐 하는 것은 현대 신학과 선교가 직면한 중요한 문제 중 하나다. 대화의 신학은 일찍이 선교를 위한 의도에서 시작되

었다. 그러나 현재 WCC의 종교간 대화는 전도목표 대신 세속적 대화, 즉 세계평화와 공동체의 화목과 질서를 위해 피차 협력하고 공동전선을 전개하는 것으로 변모하였다.

1980년대 들어서 대화의 신학은 종교다원주의로 발전하였다. 다원주의란 종교나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평화적으로 공존할 모든 종교는 동일한 구원과 진리에 도달한다는 것이다. 서구의 많은 신학자들은 종교다원주의의 신학에 동조, 기독교의 절대성과 최후성을 부인한다. 이것은 당연히 선교무용론으로 귀결되고 만다.

기독교의 일각에서 기독교의 절대성을 부정하고 타종교의 구원을 강조하면서 종교의 평화적 공존을 외친다. 그러나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는 오히려 자기들의 전통종교를 고수하고 타종교는 부정하는 종교폐쇄주의를 취한다.종교간의 평화적 공존은 커녕 소수의 타종교는 핍박하고 추방한다. 나아가 타종교의 선교활동을 철저히 차단한다. 특히 회교와 힌두교 및 유대교 원리주의자들은 자기들의 종교를 정치와 사회에 강요하여 종교이념에 기초한 일종의 신정국가를 부르짖는

■목회자신학세미나 지상중계

<종교대화의 신학과 종교대결의 시대>

전호진

(목사,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선교학교수)

다. 이란의 회교혁명은 이러한 신정국가의 대표적 모델이다. 이 시대는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대신 종교가 이데올로기로 등장하였다. 미국의 미래학자 사무엘 헌팅턴은 앞으로 세계는 종교전쟁의 시대가 될 것이라고 예고하였다. 이것이 유명한 '문명충돌론'(conflict of civilization)이다.

'대화의 신학'의 주장과 문제점

대화의 신학은 진리는 대화를 통해 발견된다고 하는 소크라테스 철학의 원리에 근거하고 있다. 즉 성경밖에서도 하나님의 계시가 발견된다고 주장한다. 1961년 뉴델리의 WCC총회에서는 '타종교'를 '다른 신앙'이라는 말로 표현했다. 또 타종교의 도덕적, 윤리적 가치를 인정하고 타종교보다 타종교의 사람을 중시하는 종교적 휴머니즘을 강조한다. 그리고 공동체와 인류의 평화와 공동의 선을 추구하기 위해 종교는 서로 대화해야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대화의 신학은 절대적이어서 할 기독교를 상대화하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 전도를 대화로 대체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종교간 공식적 대화를 통하여는 전도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또 다른 종교와 문화 속의 계시를 성경의 계시와 동일시한다. 결국 종교 다원주의는 기독교를 여러 종교 중 하나로 격하

종교대결의 세계적 상황

회교, 힌두교, 불교, 신도, 유대교의 원리주의가 등장하여 근본주의적 배타주의의 기치를 드높이고 있다. 원리주의의 목표는 다른 종교를 절대로 용납치 아니하고 종교적 신정국가를 건설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 일각에서는 전통종교를 통해 국가와 공동체의 유대감을 강화하려는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다. 이들은 선교에 주력하고 있으며 정당을 만들어 정치 세력화하는 등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반면, 서구에서는 아시아 종교가 붐을 이루면서 기독교에 대한 도전이 강화하고 있는 형편이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일부 아시아 나라에서는 전통종교가 부흥하는 문화적 복고조짐이 일고 있다.

결론

기독교의 세력이 쇠약해져 가고 이방종교가 세력을 확장해가고 있는 시대상황을 직시하고 말씀으로 영적 무장해야 할 것이다.

장로 선거

6월 2일(주일) 공동의회

우리교회 당회는 6월 2일(주일) II부 예배 후 공동의회를 열어 7명의 장로를 증원하기로 하고 선거위원회를 조직하였다. 선거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헌법해석서 제58조 3항에 의거하여 당회가 천거한 후보를 공동의회에 내놓게 된다.

투표방법은 무기명·비밀투표이며 후보자 공천대상은 현재 시무 중인 안수집사와 협동장로이다.

한국교회갱신연구원

제 3차 총회 가져

한국교회갱신연구원 동문회 제 3차 총회가 지난 13일과 14일, 광성교회훈련원에서 있었다.

이번 총회에서 회장에 차정운 목사, 부회장에 박승호 목사, 차명숙 목사, 이만호 목사, 김상은 목사, 총무에 전영국 목사가 각각 선출되었으며 협동총무로 김명현 목사, 서기는 박정호 목사, 회계는 차장호 전도사가 임명되었다.

김동무

김치(=김치)의 맛을 내는 사람들

○... 훌륭한 교회에는 훌륭한 일꾼이 있다. 안디옥교회에 바울과 바나바와 같은 일꾼이 있었듯이 우리교회는 훌륭한 일꾼이 많은 것을 자랑으로 삼고 있다. 그래서 6월 초에 있을 장로선거를 앞두고 너무도 귀한 일꾼은 많은데 한정된 수만을 뽑아야 한다는 것이 고민 중 고민이다.

○... 한국교회갱신연구원에서 실시하는 목회자 신학세미나가 눈에 보이는 이들에 의해서만 진행된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기도로 시간과 물질로, 땀흘리는 봉사로 헌신하는 성도들과 우리교회에 주신 비전을 따라 뒤돌아보지 않고 전진하도록 모범을 보여 희생하는 지도자들이 있다.

○... 일꾼들의 활약은 내일부터 시작하는 제 7차 김치신학세미나에도 예외가 아니다. 해외의 목회자 초청을 위한 서신교환, 자료준비, 각종 섭외 등 까다롭고 많은 업무를 담당한 어느 분은 컴퓨터와 팩스 앞에서 밤낮을 모르고 몇달을 보냈다. 그리고 수많은 손길들이 이름없이 빛도 없이 맡겨진 일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일이기에 기쁘게 수고의 땀을 흘렸다. 주신 은사를 따라,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이것 저것을 다듬고, 채우고, 손질한 여러 손길들이 있어 이번 김치도 맛이 잘 들었고(?), 적절하게 익혀져 내일의 잔치상에 오를 준비를 하고 있다.

○... 지금까지 수고한 손길에 감사와 격려의 박수를 보내면서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자. 또 앞으로도 선한 일꾼들을 기다리실 주님 앞에 "무익한 종이로소이다"라는 겸손한 고백과 함께 나도 충성된 일꾼이 되어 보자.

“기도로 하나님의 전을 세우자”

'96 홍해작전 6월 6일에 진군 시작

우리 교회는 해마다 전교인 특별새벽기도회인 '홍해작전'을 한다. 올해도 “기도로 하나님의 전을 세우자”라는 주제로 6월 6일에 홍해작전을 시작한다.

'홍해작전'이라는 이름에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서 진퇴양난의 위기에 했을 때, 모세가 무릎을 꿇고 기도함으로써 위기를 극복한 위대한 신앙을 따라 우리도 현재의 모든 위기를 기도로 극복하자는 의미가 담겨 있다. 전교인이 새벽에 한 자리에 모여 말씀을 받고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는 홍해작전은 '말씀과 기도의 운동'으로도 불리운다.

6월 23일까지 18일간 계속 될 '96 홍해작전은 성전 건축을 앞둔 우리의 영적인 각성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96 홍해작전 개요

■ 주 제: “기도로 하나님의 전을 세우자”

■ 주제성구: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에레미야 33장3절)

■ 기 간: 1996년 6월 6일(목) ~ 6월 23일(주일), 18일간

■ 새벽기도회 강사: 이종운 목사



“가정”을 생각하는 달에

◀ 지난 주일 예배당 입구에서는 중·고등부 학생들이 부모님과 선생님들의 가슴에 꽃을 달아드리며 감사의 마음을 표했다.
▶ 탁아부에서는 18일(금) 학부모를 초청, 자녀의 영적인 지도에 관해 화담회를 가졌다. 부모들이 화담회를 갖는 동안 아기들을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기도 하였다.



제 9학기 목회자신학세미나

5월 27일 - 제 1교시 / 로마서 강해 (이종운 목사)

제 2교시 / 급변하는 사회와 21세기 비전(이원설 박사)

* 다음 주에는 종강예배를 드리며 제 7차 김치신학세미나에 초청된 오세아니아 목회자 20명과 함께 하는 순서도 가집니다.

이종운 목사 방송설교

기독교방송(HLKY 837KHz) 「성서강해」 매주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극동방송(HLXK 1188KHz) 「생명은 빛으로」 매주 금요일 오전 9시 ~ 9시30분
대전 극동방송(HLAD FM 93.3MHz) 「늘푸른 초상」 매 주일 오후 10시 ~ 10시 45분
아세아방송(HLAZ 1566KHz) 「라디오 강단」 매 주일 오전 8시 30분 ~ 9시
새벽의 강단 매 주 금요일 오전 4시 20분 ~ 4시 40분

서울주간기도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제 7차 김치신학세미나와 오세아니아 복음화를 위하여
2. 목회자신학세미나를 통해 교회가 새로워질 수 있도록
3. 우리 가정과 우리 민족이 하나님 제일주의의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4.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산실이 될 전(殿)을 건축할 수 있도록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주일 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III부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주일 오후 5시
수요 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교회위치

